

ESPERANTO 의 음 성 과 음 운 박 지 홍

1. 앞 머 리 에

에스페란토는 폴란드의 자멘호프(1859-1917)가 창안해 낸 국제보조말인데, 이 언어는 1887년에 그의 손으로 처음으로 세상에 등장되었다.¹⁾ 그러니 에스말의 역사는 그리 길지 못하다. 그러나, 이 말은 의외로 우리 나라에 빨리 소개되어²⁾우리는 이미 60년의 에스말 역사를 지니고 있다. 그러니 이 말은 우리 겨레에게 그렇게 낯선 언어가 아니다. "한 겨레 두 말 주의"를 표방하여 이룩된 세계 모든 겨레의 제 2 국어라 할 수 있는 이 언어는, <같은 겨레끼리의 대화에서는 반드시 모국말을 쓰고 서로 다른 겨레끼리의 대화에서는 에스말을 쓴다>는 철칙을 지침으로써 세계 모든 겨레의 겨레말을 보호하고 육성하는데에 이바지하고 있다.

에스말은 홀소리 5, 당소리 25에 말본 규칙 16으로 된, 영어를 배운 일이 있는 이면 1시간에 완전히 배워 낼 수 있는 말인데, 이는 영국말 독일말. 러시아말. 그리스어말. 라틴말 등에서 에센스를 뽑아서 정리한 말이다.

이 말은 쉽고. 아름답고. 풍부하며, 세계말로서의 실용성이 높이 평가되어, 현재 지구상에는 약 60 나라에 걸쳐, 1천만명 정도의 초보자와 50만 정도의 에스말로로 자유자재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이가 있어³⁾에스말과 호흡을 같이하며, 그 장래를 약속하고 있다. 성서 등 약 3천 종류의 가치 있는 각 나라 서적이 이 말로 번역되어 있으며, 1905년 이후 계속되어 오는 <세계 에스페란토 대회>에는 세계 각 나라에서 평균 약 2천명의 대표가 참가하여 일대 성황을 이루고 있다.⁴⁾

어떤 이는 에스말은 인조말이므로, 그것이 문학으로 지향할 수 없어

에스말의 장래는 어둡다고 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한국 Esperanto의 아버지 김억은 다음과 같이 답하여 에스말의 참다운 가치를 알려 주고 있다.

<< ... 에스페란토말은 한 개인의 머리속에서 독단적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고, 정리되지 못하고 흩어져 버린 자연어를 규칙있게 정리하여 놓은 데 지나지 않습니다. 달리 말하면 야성으로 피는 꽃을 뽑아 정원에 놓은 것과 같아, 조금도 본래의 향내와 빛이 손상되지 않은 꽃과 같은 언어입니다. 달라진 것은 곳과 그릇뿐입니다. ... 에스페란토말은 구미 각국에 산재하는 공통성을 가진 언어를 골라 일정한 규율 속에 집어 넣은 것입니다. ... "평론의 평론" 잡지의 전 사장 스탠드씨의 "지금까지 쉼스피어의 험릿이 여러 국어로 이식되었으나, 우리는 항상 본래의 면목대로 소개하지 못한 것을 불만으로 생각하였더니, 이번 에스페란토 말 역문을 읽고 비로소 세계 문단에 본래의 면목대로 이식되었음을 기뻐한다" 고 한 말이 있습니다. ... >>

2. 본 글

2.1 에스말의 음소 — 모두 28 음소로 되어 있는데, 이는 28의 낱자로 표기된다. 에스말의 표기는 한 음소 한 낱자의 규칙에 따라 이루어져 있는데, 28음소를 나타내는 28 낱자를 올리면 이렇다. (큰 글자는 로마자에 준한다.)

a, b, c, ĉ, d, e, f, g, ĝ, h, ĥ, i, j, ĵ, k, l, m,
n, o, p, r, s, ŝ, t, u, ŭ, v, z.

이 중에서 <a, e, i, o, u> 의 5낱자는 홀소리 5음소의 표기에 쓰이고 나머지 23낱자는 닿소리 23의 표기에 쓰인다. 그리고 에스말은 발음에 있어 너무도 쉬운 말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일본 사람에게까지 쉽다는 평을 받고 있으니, 우리 나라 사람에게는 말할 필요조차 없다.

2.2 에스말의 홀소리 — 앞에서 이미 일러 두었지만, 에스말 홀소리

(vokalo) 의 음소는 모두 5 인데, 이는 나라에 따라 개인에 따라 약간의 차가 있어 음성의 수는 음소 수보다는 많다. a 는 [a] 로 발음해야 하는데, [α] 로 발음하는 이도 있고, e 는 [e] 로 발음해야 하는데 [ε] 로 발음하는 이도 있으며, 한국 사람들 중에도 경상도 출신들은 u 들 [ɯ] 로 발음하기도 한다. 이 5 홀소리는 액센트가 있을 경우에는, < a:, e:, i:, o:, u: >¹¹⁾ 와 같이 길게 발음 되는 일이 많으나, 발음의 길고 짧음에 따라 의미에 변화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긴소리는 음소와는 관계가 없다!²⁾

홀소리의 발음에 대하여, 한국의 에스말 학자인 김 테경님은 에스페란토의 홀소리 < a, e, i, o, u > 의 발음은 우리말의 홀소리¹³⁾ < 아, 에, 이, 오, 우 > 와 거의 같다고 했고,¹⁴⁾ 일본의 에스말학자 Ôsima¹⁵⁾ 는 에스페란토의 < a, e, i, o, u > 는 < a, e, i, o > 만은 일본말과 거의 같으나 u 만은 일본말의 홀소리 う (u) 와는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다!¹⁶⁾

우리말의 "우"는 그 표준발음이 [u] 이고, 일본말의 う (u)는 그 표준발음이 [ɯ] 인 데서 이러한 설명의 차이가 생겨난 것으로 보아진다.

지금까지 올린 설명을 마무리 할 홀소리 그림표를 보이면 에스페란토말의 5 음소 발음¹⁷⁾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것 같다!¹⁸⁾

혀	앞 소 리	가운데소리	뒷 소 리
입			
단 은 소 리	i		u
반 단 은 소 리	e		o
연 소 리		a	

오늘날 에스말은 세계의 약 60 개 나라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고 있으며, 이 말은 해를 더불어 사용하는 거래가 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에스말을 음소로서는 다만 < a, e, i, o, u > 의 5 소리로 되어 있는 것은 하나, 이 5 음소에 맞서는 음성들 수는 그보다 훨씬 많다고 확신했다.

/ a, e, i, o, u / 의 변이음은 이론상 각 거래말이 가지고 있는 변이

음의 수효와 맞서게 되는 것이니, 에스말의 홀소리의 음성의 수효는 그것이 몇 개라고 말하기 어렵다. 다만 / a, e, i, o, u / 소리의 변이음이 모두가 그 수효가 된다고 하겠다.

2.3 에스페란토의 닿소리 — 에스말의 닿소리의 음소는 모두 23인데, 이는 거트에 따라 상당한 차가 있어 음성의 실제 수는 음소의 수보다 훨씬 많다. 닿소리 23 음소를 다음에 올려 둔다.

1) 낱자와 닿소리 23 음소 — 아래의 보기들에서 앞에 적은 것이 에스말의 표기에 쓰이는 낱자이고 뒤에 적은 것이 낱자에 맞서는 음소이다.

- b/b/, c/ts/, ĉ/t /, d/d/, t/f/, g/g/
 ĝ/d₃/, h/h/, ĥ/x/, j/j/, ĵ/ʒ/, k/k/
 l/l/, m/m/, n/n/, p/p/, r/r/, s/s/
 ŝ/s/, t/t/, ŭ/w/, v/v/, z/z/.

2) 닿소리 23음소의 분류 — 23 음소의 분류를 그림표로 보이면 이렇다!⁹⁾

곳	방법	혀	짐	관	음	혀	짐	갈음	코로	빠	짐	흐	늬
입	술		p b		f v						m		
	이				s z		ts				n		
혀	끝		t d										r
혀	엷												l
잇	몸				ʃ ʒ		tʃ dʒ						
선입천장							j						
어린입천장			k g				x w						
목							h						

위에 올린 소리에서, p 는 [p] 로 발음해야 하는데, 라틴 계통 사람들은 모두 p^h[ㅍ] 로 발음하고 있고, 우리 나라에서는 많은 이가 [p^h] 로 발음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p^h]로 발음하고 있다.

t 도 그렇다. t 는 [t] 로 발음해야 하는데, 라틴 계통 사람들은 t^h[ㅌ] 로 발음하고 있고 우리 나라에서는 많은 이가 [t^h] 로 발음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t] 와 [t^h] 가 섞여 쓰이고 있다.

또 k 의 경우도 그렇다. k 는 [k] 로 발음하게 되어 있는데, 라틴 계통 사람들은 [k^h]로 발음하고 있고, 우리 나라에서는 [k^h] 로 발음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k] 와 [k^h] 가 섞이어서 쓰이고 있다.

일본과 우리 나라와의 사이에 이렇게 발음이 다르게 된 것은, 두 말이 가지고 있는 음운의 차이에서 오기도 했지만, 일본의 에스말은 라틴 계통에서 들어왔고, 우리 나라에는 게르만 계통에서 들어왔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흥미 있는 것은, c 의 발음이다. 이것은 [ts] 로 발음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소리는 우리 나라에서도, [ts^h] 로 발음하지 않고 [ts^h] 로 발음하고 있다. 이는 일본과 그 소리냄이 같다.

에스페란토에서는 [p], [p^h], [p^h] 가 모두 하나 음운이다. 이는 /p/ 로서 대표된다. [t] 나 [k] 의 경우도 한가지이다. 우리 나라 사람들에게는, /k/, /k^h/, /k^h/, 나 /t/, /t^h/, /t^h/ 나 /p/, /p^h/, /p^h/ 가 말할이나 들을이에게 똑같이 판 소리로 식별되고, 그것이 낱말 속에 쓰일 때 낱말의 뜻을 나누어 내는 소리가 되는데, 서구 사람들이나 미국 일본 사람들에게는 이들이 모두 같은 소리로 들리므로, 에스말에서는 /k/, /t/, /p/ 의 세 음소만 두게 한 것이다.

우리 나라 사람들에게는 < 달, 딸, 할 > 이 판 소리로 들리고, 판 말임이 판별되나, 서구나 미국이나 일본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다 같은 소리, 같은 말로 들리는 것이다. 그래서 에스페란토에서는 이들이 3 음소가 되어 있는 것이다. k, t, p 는 경우에 따라서는 [k^h], [t^h] [p^h]로 소리 나기도 하는데, 이는 겨례에 따라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고, 발음 환경에서 생겨나는 현상이다.

보기를 들면 이렇다. — k 가 [k'] 로 소리나는 경우이다. —
(보기) frukto (과일) [fru:k'to].

frukto 에서, k 는 t와, 곧 려질 닿소리가 려질 닿소리와 닿혀 있다. 그래서 이 앞 려짐소리 /k/ 는 본래의 소리값을 다 내지 못하고 [k'] 로 바뀐 것이다. 에스말은 세계의 온 겨레가 다 같이 쓰게 하기 위하여 만든 말이므로 발음을 쉽게 함에 크게 유의 했는지, ĥ 소리는 그 소리냄이 겨레에 따라서는 곡히 어렵다. —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는 /ħħ/ 소리가 있었으나 지금은 사라지고 없으므로 이 소리는 우리 겨레에게도 발음하기가 딱 힘들다. 이런 점이 있어 이 ĥ 는 차차 /k/ 로 바뀌어 가고 있다.

2. 4 에스페란토의 액센트 — 이제 끝으로 에스페란토의 실제 발음에 언급하여, 이 말의 액센트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에스페란토의 액센트는 끝에서 둘째 홀소리에 있는데, 발음할 때 이 홀소리를 강하게 소리 내게 되어 있다. 보기를 들면 이렇다.

Béla knabino bóne labóras
(아름다운 소녀가 잘 일한다)

에스말 에서는 a 로 끝난 말은 그림씨, o 로 끝난 말은 이름씨, e 로 끝난 말은 어찌씨이고, i, as, is, os, us, u 로 끝나면 움직씨이다. i 는 으뜸꼴씨끝이고, as 는 직설법 "이적"을, is 는 "지난적"을, os 는 "울적"을 나타내며, us 는 가정법을 u 는 명령법을 나타낸다.

< 주 >

- 1) 허응·박지홍 : 국어국문학사전 참조.
- 2) 숙대학보 제15.16집 함병호, 143쪽, 김삼수 : 한국 에스페란토 문학에 보면, 우리나라에 에스페란토 협회가 세워진 것은 1920 년이다.
- 3) 三宅史平 : 에스페란토의 話 : 일본 대학서림, 1976, 동경, 66쪽 참조.

- 4) 김 태경 : 위 책 20쪽에 보면, 1963년에는 이 대회에 4천명이 참석하고 있음.
- 5) 1925년 3월 16일자 동아일보 - 김 안서 "에스페란토와 문학" 참조.
- 6) 날자는 라틴글 자를 가져다가 융흥 해서 만든 것이다.
- 7) 날자위에 ^ (삿갓) 표와 ∪ (반달) 표를 붙여 새 글자를 만든 것은 한 소리는 한 날자로써 표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보기 ch= ĉ, sh= ŝ).
- 8) 川崎直一 : 기초 에스페란토 : 일본 대학서림, 1971, 동경, 참조.
- 9) 三宅史平 : 위에 올린 책 91 쪽 참조.
- 10) " : 에스페란토 기초 1500 어 : 대학서림, 1979, 7쪽.
- 11) 에스말의 악센트는 반드시 날말의 끝에서 둘째 홀소리에 있다.
- 12) 三宅史平 : 에스페란토 조사전 (머리말) : 대학서림, 1972, 8쪽.
- 13) 정확히는 서울말이라 해야 하겠다. 우리말의 "우" 발음은 서울 말에서는 [u] 로 발음되나 경상도 말에서는 [ɯ] 로 일본말의 う 와 같이 발음된다.
- 14) 김 태경 : 위에 올린 책 26 쪽 참조.
- 15) ○ 위에 있는 삿갓표는 긴소리 부호이다.
- 16) 大島義天 : 에스페란토 4 주간 : 일본 대학서림, 1969, 동경, 5-6 쪽.
- 17) 에스말의 발음은 대체로 이탈리아말이 표준이 된다고 한다.
- 18) 村松正俊 : 라틴어 4주간 : 일본 대학서림, 1975, 동경, 4 쪽.
김 승곤 : 일반음성학 : 교문사, 1976, 서울, 114 쪽.
- 19) 김 태경 : 위에 올린 책, 27-28 쪽 참조.
大島義天 : 위에 올린 책 13 쪽 참조.
三宅史平 : 에스페란토 조사전 (머리말) : 8쪽, 참조.
K. Kalocsay - G. Waringhien : Plena Analaniza Gramatico de Esperanto, 1980, Rotterdam, 48 쪽 참조